

핀테크, 협업·융합·규제 개선이 선결 조건

특별기고 - 핀테크



송주빈
전자전파공학
교수

최근 “연봉 반토막도 좋다, 금융맨들 째서 핀테크로” 같은 기사들이 흥미롭다. 실제로 국내 핀테크 기업에 인재들이 몰리고 있어 채용 경쟁률이 보통 40:1이라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의 테마주가 핀테크라는 소식도 들린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애플페이와 같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환경에서 간편한 지급결제, 송금, 대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거래, 클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융합 산업을 의미한다.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핀테크를 이용한 거래 규모는 매년 27%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금융업이 강한 영국에서는 핀테크 분야 거래가 매년 75% 이상 증가하고 있고 투자 규모도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앞선 플랫폼 기술의 장점을 토대로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83%가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제공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사용자가 1억 8,000명이 넘고 연간 거래액이 800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플랫폼과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

반면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국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과 융합 산업인 핀테크 산업에서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핀테크에서 대출, 자산관리,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이 필요하고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경쟁력 있는 신용관리, 리스크 회피, 투자 예측 등을 수행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금융 데이터 분석은 신용카드가 아닌 SNS 및 인터넷 소핑몰 등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신용을 평가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로 머신러닝과 통계적 처리를 통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다. 금융 소프트웨어는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결제상의 오류, 수수료 과다 인출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거나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포트폴리오, 연금 투자, 세금과 같은 비용 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핀테크 플랫폼은 온라인으로만 대출 신청서를 받고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대출 신청자의 금융기관 거래 내용, 현금 흐름, SNS 평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수분 내에 신용평가 및 대출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 기업들은 훨씬 적은 투자비용으로 전통적인 은행들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로 고객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에서 대출 리스크 관리는 빅데이터와 소셜데이터 등

대안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존 은행들보다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보를 모아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벤처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대출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핀테크 P2P(Peer to Peer) 서비스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한 협업, 융합활성화,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

실제로 중국의 알리파이낸스는 알리바바와 티몰을 통해 축적된 거래량, 재구매율, 만족도 등 직접적인 데이터와 판매자와 구매자간 대화, 구매 후기, SNS 등의 간접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출심사 대상자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출의 불량채권 비율은 0.9%로서 기존 은행의 2%보다 훨씬 낮다. 핀테크에서는 소비자의 금융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해 자산을 관리해 주고 투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야는 다양한 금융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 가능하며 핀테크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정확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장점으로 급격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도 뒤늦게 미국의 핀테크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에 뛰어 들 준비를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국내의 금융 규제 때문에 결제대행 사업자 허가를 받은 LG CNS의 엠페이를 이용한 간접적인 핀테크 서비스이다. 뱅크월렛카카오는 간편한 소액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금융 분야의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 은행들의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Active-X를 이용한 불편한 지급결제, 여러 관련 분야와의 협업 부족 등으로 인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올해 3월 말부터 Active-X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향후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 융합 활성화, 획기적인 규제 개선, 금융 기술 발전 연구, 핀테크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 핀테크 산업의 토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경쟁력 있는 핀테크 산업은 한국의 금융지도를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참여마당

차현영
(경영학 2014)



여성이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

유니레버가 아시아 10개국의 여성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한국 여성의 비율은 1%(200명 중 2명), 조사 대상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성형수술을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은 53%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일까?

그 원인 중에는 대중매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TV나 스크린에 노출되는 직업군 중에서도 특히 연예계에서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다. 직업적 속성상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니,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에 주사를 맞거나 칼을 대는 행위를 점점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 대부분의 연예인을 보면 쌍꺼풀이 있는 큰 눈에, 날렵한 코, 가름한 턱 라인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힘든 얼굴이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는 매년 이와 비슷한 얼굴만 비춰지고 소비된다. 어느 샌가 대중매체가 정형화된 미의 기준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중매체가 설정한 미의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 외모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성형수술로 더 예뻐진 모습을 얻어도 내적인 문제는 그대로이다

모두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대중매체가 양산한 미의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이 못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모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방면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뒤처지지 말 것을 교육(?)받아온 한국인들은, 어느새 자신도 텔레비전이 부각시키는 그 ‘예쁜 얼굴’이 되기 위해 선풍 성형외과로 향한다. 그렇게, ‘보급형 미인’들이 탄생한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꽤 많은 여성들은 내적인 자기계발엔 소홀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성형수술을 통해 해소하고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런데 성형수술만이 자존감 회복의 유일한 해답일까?

그렇지 않다. 여성 대부분이 빠져있는 ‘자존감 결여’ 상태의 근원은 외모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형수술로 더 예뻐진 모습을 얻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하여도 진짜 자아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봉책’일 뿐이다.

성형수술은 자기계발의 방법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로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수술을 할 돈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이 진정으로 아름답기 때문이다.

▶1면에서 이어짐

나아가 신으로부터 나온 사물은 신의 일부이고 신은 사물들에 내재적이다. 신은 곧 자연이며 인간은 이러한 자연의 일부다. 인간의 올바른 삶은 외부 사물들의 영향에 맞서 본질이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철저한 민주주의의자였다. 그는 지적인 성장에 따라 인간의 완전성이 나누어진다고 하면서도 결코 귀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 정치적 권리는 인간의 지적, 도덕적 완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살려는 노력(코나투스)에 있고 이점에서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모두의 코나투스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론은 『신학정치론』, 『윤리학』, 『정치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그의 정치적 사유의 과정에서 ‘양도 없는’ 사회계약이라는 근대 정치이론가들과는 다른 그만의 독특한 이론에서 완성된다.

“자유인은 선택개념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스피노자




《윤리학》의 독특한 점은 다양한 주제들이 기하학적 방식으로 나간다는 점이다

와 니체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욕심 많은 누이동생이 있다는 것이다. 스피노자가 죽자 누이동생이 유산에 욕심을 내서 스피노자의 하숙집에 찾아와 유산 목록을 하숙집 주인에게 요구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갇지

못한 빛이 있었다. 약값, 이발비, 하숙비 등. 누이동생이 보기에 유품을 팔아도 빛을 갚기 어려울 것 같아 빚쟁이들에게 유품을 처분하도록 맡겼다. 그 결과 빛을 청산하기에 충분했다. 유품을 사려는 사람이 몰릴 정도로 스피노자의 명성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뿐이어서 결국 누이동생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진정한 유산인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들은 스피노자의 유언대로 유산목록을 작성하기 전 암스테르담의 친구에게 보내졌다. 자신의 학문적 자유를 단절되었던 가족관계에 다시 얽히들게 하지 않으려는 스피노자의 심모원려였을 것이다. 이 점이 그가 니체와 다른 점이다. 니체의 유교가 그것을 독점한 그의 누이동생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었던가!

『윤리학』을 비롯한 스피노자의 글은 그가 죽은 그해 바로 출판된다. 섬세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위대한 정신은 이제 그를 탄압하던 교회, 정치세력들이 못 미치는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KYUNG HEE UNIVERSITY

Global Collaborative 2015 Summer Program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2015.07.03~2015.07.30, (4주간)
- 개설강의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19개 강의(GC홈페이지 참조)
- 참여대상 국내외 대학(원)생
- 신청기간 2015.03.16~2015.04.30(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장학금 경희대학생의 경우 미래문명원 네오내선스장학 신청 가능(추후 공지예정)
- 문의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c.khu.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hugc

